

賀 序

먼저 天鳳 石琮顯 教授님의 華甲과 華甲祝賀記念論文集 發刊을 축하드립니다.

精力에 넘친 外貌로 보나 旺盛한 活動狀으로 보나, 石琮顯 教授님이 벌써 60이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自己管理를 철저히 하면, 사람이 60이 되어도 젊은이 못지 않게 활동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산 증거를 석종현 교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 모든 이에게 敎訓과 勇氣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석종현 교수님은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우리나라에 선진 독일의 행정법이론을 뿌리내리게 한 제1세대로서 기억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986년에 初版이 발간된 이래 오늘날까지 best seller의 반열에 올라 있는 一般行政法 (上). (下)는 “石琮顯 行政法”의 結晶體라고 하겠습니다.

석종현 교수님은 學者로서는 매우 드물게, 사람들을 끌어 모아 큰 일을 成事시키는 企劃者(Planner), 行事者 또는 興行者(Veranstalter)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며, 실제로 그에 관한 많은 업적을 쌓은 분으로 기억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韓國土地公法學會를 창설하여 정기적으로 學會를 개최하고 수준 높은 學會誌(土地公法研究)를 발간하고 있는가 하면, 독자적 研究所(한국법제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그에 대한 證據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이기에, 그 사이 韓國公法學會 會長을 역임하고 현재도 韓國環境法學會 會長을 맡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석종현 교수님은 그의 활동무대를 독일 등 외국에까지 넓히고 있는, 매우 드문 學者로서 기억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사이, Will Blumel, Gunter Puttner, Michael Ronnefitch, Rainer Pitschas, Hans Werner Laubinger 등 쟁쟁한 독일 公法學者를 講演者(Vortragere)로서 學會에 초청한바 있으며, 그분들을 포함한 여러 외국학자가 석종현 교수님의 화갑기념논문집에 깊이 있는 논문을 기고하고 있는 사실에서 역시 그의 산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석종현 교수님의 그와 같은 國際的인 넓은 人脈과 交分 덕분에 이 사람은 1995년 9월에 석종현 교수님의 母校이기도 한 독일 국립슈파이어 행정과학대학원(Deutsche Hochschule für Verwaltungswissenschaften)에서 개최된 심포지움(Speyerer Forum zur Rechts- und Verwaltungszusammenarbeit)에 석종현 교수님과 다른 두 분의 학자(金孝全 교수 및 朴秀赫교수)와 더불어 참석하여 주제발표(Die Rolle des Verwaltungsrechts im staatlichen Wandel am Beispiel Suedkorea)를 하는 기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교통비와 체재비는 물론, 논문발표 수당까지 독일 대학이 부담하는 조건하의 국제적 학회모임에 한국학자가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석종현 교수님의 출중한 힘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적은 국립슈파이어 행정과학대학원에서의 한국 및 독일학자 들의 발표 내용은 “한국 및 독일에서의 국가법 및 행정법의 발전(Entwicklungen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in Südkorea und Deutschland)”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어 있음을 적어 두는 바입니다(Schriftenreihe des Hochschule Speyer, Band 127).

저는 개인적으로, 석종현 교수를 따듯한 마음씨를 지닌 Humanist로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공이 같은 年長者에 불과한

이 사람을 석종현 교수는 언제나 따듯이 대하여 주었으며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석종현 교수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따듯하고도 풍부한 人間美로 인해 그분의 주위에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오늘과 같은 매마른 풍토에서 방대한 論文集이 발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석종현 교수님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업적을 쌓으며 활동을 계속하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2003. 9. 18.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전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金 南 辰